

월출산 끈끈이주걱 복원 1000개체 도감습지 이식

법정보호종...국립공원사무소 자체 인공증식 성공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생물종 다양성 증대와 훼손된 습지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해 희귀식물인 '끈끈이주걱'〈사진〉 1000개체를 도감습지에 이식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식은 날씨 등의 여건을 고려해 다음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는 끈끈이주걱은 국내 습지에 서식하는 대표적 식충식물이다.

이번에 이식하는 끈끈이주걱은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가 조성한 습지 식물 실내증식장에서 자체 인공증식 기술을 통해 지난 4월부터 길러낸 개체다. 본격적인 이식에 앞서 끈끈이주걱 현장이식 시험포를 조성, 최종 점검까지 완료한 상태다.

여러해살이풀인 끈끈이주걱은 끈끈한 액체를 내어 벌레를 잡아 먹는 식물로 대중에 알려져 있다.

끈끈이주걱이 서식하는 곳은 주로 해가 잘 들고 산성을 띠는 습지 지역이다. 앞은 주걱 모양으로 생겼으며 표면에 붉은빛의 선모가 있다.



앞의 앞면과 가장자리에 붉은빛의 선모가 있는데 이 선모에 붙은 작은 벌레를 잡아 먹고 산다.

끈끈이주걱은 월출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이기도 하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징적 야생 동·식물을 말한다. 월출산에는 현재 500개체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50~100개체 정도가 도감사 습지에 분포해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500~1000개체 정도가 월출산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기록됐으나 최근들어 개체 수가 급감,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09년부터 끈끈이주걱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단계적 복원사업의 첫 단추는 도감사 습지 주변의 탐방로를 이설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탐방객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이후 끈끈이주걱을 인공증식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별도의 장소에서 꾸준한 육종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승희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올해 끈끈이주걱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육화현상 예방작업, 세굴지형 복원, 보호시설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며 "끈끈이주걱 이식을 통해 도감습지가 예전의 건강한 습지로 복원될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남=대성수기자 dss@

전남도 서울서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29일부터 3개월 과정 개설

전남도가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을 도내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남도는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인생 2막지로 '녹색의 땅 전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3개월 과정의 귀농·귀촌 아카데미를 개설,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유치사무소 내 강의실

에서 열릴 귀농·귀촌 아카데미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전남으로의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남도의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귀농·귀촌 실제 성공자들을 강사로 초청해 경험담과 교훈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투자유치사무소는 서울시내 최고의 교통요지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 위치해 누구나 빠르고 편리하게 교육 장소를 찾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전남도는 귀농·귀촌에 대한 각종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귀농계획 수립에서부터 정착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계획이다.

교육 수요자에 대해서는 관심 분야별로 귀농·귀촌 성공자와 결연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서울과 전남에서 귀농·귀촌 성공자와 교육수요자 간 반기별 1회 정도 수시 만남도 추진한다.

김금음 서울투자유치사무소장은 "앞으로 귀농·귀촌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연중 귀농·귀촌 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전남만의 차별화된 시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성 필암서원-中 악록서원 학술대회·초청특강 등 교류

천웨이 중호남대 부서기 장성 방문 방안 논의

한국의 대표 서원인 장성 필암서원과 중국의 대표 서원인 악록서원의 교류가 가시화됐다.

28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김양수 군수와 천웨이(陳偉) 중국 호남대 부서기(부총장)가 만나 필암서원과 악록서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양측은 서원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제향(서원에서 지내는 제사) 때 상호 초청과 서원 관계자 교류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학생 및 공무원 교류, 21세기 장성 아카데미와 악록서원 논단의 상호 초청 특강, 문화예술단체 공연 등 인적·교육·문화 교류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천웨이 중국 호남대 부서기는 "필암서원을 둘러보며 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귀국 후 필암서원을 비롯한 장성군과 보다 구체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수 군수는 "오늘 만남이 양 서원 간의 교류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서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오는 10월 중국 호남대 악록서원을 직접 방문해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장성=김홍호기자 yongho@

멘토에 갈증나고 힐링에 목마르는 시대!

명랑해결단

그들을 위한 명쾌한정답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밤 11시

이운석, 이유리, 서경석

CHANNEL A www.ichannelA.com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 A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전남여성플라자 농어촌지역 순회 성폭력예방교육

전남여성플라자가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전남여성플라자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1~2학년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너! 나! 우리는 소중한 나'라는 주제로 지난 7월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생애주기별 성폭력예방'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며 따른 것으로, 7월 장흥 용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성폭력상담소가 없는 농어촌 지역의 8개 초등학교와 5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기존의 강의형식 교육에서 벗어나 모둠별 활동을 통해 성



전남여성플라자가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 장면.

폭력위험 상황에 대한 예방법과 도움자원에 대한 인식강화에 도움을 주고 평가하고 있다.

전남여성플라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도 성폭력예방교육 지역

지원기관으로 선정돼 9월부터 호남 지역의 공무원, 학부모, 소상공인 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산학클러스터 부지 첫 분양

전남문화산업진흥원 5136㎡ 미디어산업 센터 건립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 빛가람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의 첫 분양계약이 체결됐다.

전남도는 28일 "전남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개발공사가 산학연클러스터 5136㎡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는 정보통신 분야 입지 불특으로 지난 12일 분양·공고됐다. 이에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이 단독 매입 신청을 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은 클러스터이 부지에 100여억원을 투자해 실감

미디어산업 기반 조성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300㎡로 2014년 3월 착공해 2015년 4월 준공한다.

전남도는 첫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산학연클러스터 보완역이 나오는 대로 결과를 반영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유치 및 분양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새하정보시스템, ㈜윙넷부 등의 기업들이 이점을 검토 중으로 토지 분양공고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

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한전 나주통합IT센터, 한전KPS 연구개발 복합단지, 한전KDN 전력IT연구원 등도 공공기관과 동반 이전이 확정돼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설동진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올해부터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연관기업 및 협력업체의 분양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산학연클러스터 부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홍도항 동방파제 턱기 입찰 '잠음'

탈락업체들 '부적격 업체 선정' 이의신청 제기

전남도가 턱기(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신안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체가 "부적격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홍도항 방파제 축조공사(사업비 859

억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해 1순위로 H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탈락한 다른 H사가 "입찰 안내서 기준과 달리 내연발진소를 보 호하는 전면 상치(上置) 콘크리트 받선(22m)을 누락했으며 이는 입찰 목적 사항이다"고 주장하며 이의신

청을 한데 이어, 후순위 업체인 N사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냈다.

통상 입찰 후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으며, 이후 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소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1순위 업체가 설계상 누락한 부분은 감점 대상이지 부적격 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